

# 학교도서관 멀티미디어화의 본질을 생각한다

송 기 호\*

- 목차 :**
1. 교육정보의 디지털화 그리고 온라인화의 영향에 대한 이해
  2. 지식의 전달자에서 지식의 안내자로의 역할변화에 대한 이해
  3. 학교도서관의 존재 의의를 위한 제언

교육정보관이나 교육정보실로 부르는 멀티미디어화된 학교도서관을 지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형태를 인쇄매체 중심에서 영상매체와 전자통신매체를 통합 운영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분명하고 그리고 간단하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당해 학교 교육과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교수-학습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형태의 변화 자체가 학교도서관의 본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학교 교육과정에 더 많이 기여하느냐가 학교도서관의 본질인 것이다.

역설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학교도서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 1. 교육정보의 디지털화 그리고 온라인화의 영향에 대한 이해

인류문명사를 원시공동체 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순으로 규정짓게 만든 과학 기

술의 발달에 의하여 오늘날의 인류 문명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놀라운 발달과 함께 정보 사회에 접어들었다. 도서관 또한 전통적인 형태의 인쇄매체 도서관(The Paper Library)을 거쳐 자동화 도서관(The Automated Library)으로 이제는 제3단계인 전자도서관(The Digital Library)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의 문명사적 변화는 필연적인 현상으로써 학교도서관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문제는 문명의 발달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형태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 형태의 변화가 가져올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 즉 교수 - 학습 활동 지원의 방법과 내용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달려있다.

명심할 것은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서관의 물리적 형태의 변화는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도서관의 상위 조직인 범사회적, 범국가적 정보화 정책과 방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역시 그 물리적 형태의 변화가 학교도서관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즉 학교도서관 멀티미디어화는 학교도서관의

\* 개포고등학교 사서교사(song7@nownuri.net)

상위 조직인 학교의 교육 정보화나 시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정보화 방향과 정책에 의하여 그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부가 2002년 실시 목표로 발표한 새학교문화 창조 제하의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과교실 수업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과실에 비치할 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새학교문화 창조(서울:교육부,1998), p84]

교도서관을 학습 정보실로 운영하기 위하여 ① 충분한 도서 구입비 확보 ②도서관 관리 체제 구축(열의에 찬 교사를 도서실 운영 전담 교사로 지정) ③개가식 운영 ④월간지 및 신문 구독 ⑤ 인터넷과 통신 전용선 활용(도서실 한켠에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 4-5대 비치 운영) ⑥카드 복사기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새학교문화 창조(서울:교육부, 1998), pp.87~90]

에듀넷망을 이용한 학교 급별·교과별·이용자별 교육정보의 제공은 교육정보화가 정보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정보의 디지털화와 D/B화를

| 교과  | 실별   | 기자재 및 비치도서  |
|-----|------|---|
| 윤리  | 401호 | OHP1대, 586 PC 1대, TV 1대   |
| 국어  | 403호 | OHP1대, TV 2대  |
|     | 303호 |   |
| 수학  | 301호 | OHP2대, 586 PC 2대, TV 2대   |
|     | 302호 |   |
| 사회  | 402호 | OHP1대, 586 PC 1대, TV 2대<br>VCR 1대, 실물환등기 1대, 오디오 시스템 1조                       |
| 과학  | 101호 | OHP1대, 586 PC 1대, TV 2대<br>VCR 1대, 실물환등기 1대                                   |
| 음악  | 203호 | 전자올겐 1대, TV 1대 오디오 시스템 1조   |
| 미술  | 102호 | 실물환등기 1대, TV1대, 이젤 53조  |
| 영어  | 201호 | 586 PC 2대, TV 2대, 카세트 2대  |
|     | 202호 |   |
| 컴퓨터 | 컴퓨터실 | 586 PC 57대, 빔프로젝터 1대, 실물환등기 1대, 캠코더 1대,<br>CD-Record 1대, 컬러잉크젯 4대, VTR·VCR 1대 |

아울러 학교도서관에 대한 항목을 찾아보면, 학교 교육의 꽃, 독서교육의 활성화 항목에서 학

통한 중앙집중화에 있으며, 이것을 온라인망을 이용하여 직접 교육 수요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교육정보화 계획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 정보화는 학교도서관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만이 단위 학교의 교육 정보를 독점하였던 우월적 지위와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짐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만일 각 교실에서 교사 각각의 책상 위에서 교수 - 학습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학교에서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도서관의 공간과 시설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이것이 현상론적 입장에 치중해서 학교도서관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 2. 지식의 전달자에서 지식의 안내자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

그 동안 우리는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형태를 인쇄매체 중심의 전통적 도서관에서 벗어나 다매체를 통합 운영하는 이른바 미디어 센터화를 주창해 왔다. 교육정보화라고 하는 교육의 물리적 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도서관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센터의 발원국인 미국의 경우 1957년에 있었던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닉 발사 사건이 학교도서관의 물리적 형태와 기능 변화의 계기였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기존의 주입식 교육 체제로는 소련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학생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방법과 환경을 필요로 했으며, 이러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의 새로운 모형과 운영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 환경은 어떠한가? 이미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 보다는 각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 폭이 확대되었고, 선택과목의 증가와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으로 학교에 온라인망이 형성되고 각 교실에 멀티 기교재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중요한 변화는 과거 주입식 교육 방법의 탈피에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수행평가의 도입으로 이제 학생들은 각 교과목마다 최소 1학기에 1번쯤은 부여된 학습과제를 해결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되고 그 결과가 성적에 반영되고 있다. 즉 교과서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생 스스로 수준에 맞는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학습과제를 해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을 길러야만 하는 학습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대변하는 말이 바로 학습 방법의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자 중심의 교육, 정보소양 인증제 실시, 정보 능력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 더욱 강조되고 확대될 전망이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물리적 형태가 자동화되고 매체가 통합된 학교도서관이 학습 방법의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등으로 변한 교수 - 학습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하는가? 이다.

선택은 두가지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그 하나는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교육 정보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인쇄매체 중심의 학교도서관에서는 책을 지키고 앉아서 찾아오는 교사나 학생에게 안내해 주었고, 교육정보화 환경에서는 전산 입력한 자료의 서지사항을 보물로 여기고, 교과교사와 단절된 채 몇대의 컴퓨터와 몇 개의 CD-ROM타이틀을

지키고 앉아있는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도서관이나 사서교사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길이다. 앞서 살펴본대로 국가 수준의 디지털화와 온라인망의 확대는 더 이상 문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과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별개로 운영되는 독자적 운영의 종지부를 의미한다.

이제 남은 길은 학교도서관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다. 교육 정보의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적어도 창조적 문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은 D/B와 디지털 데이터 속에서 교과과정에 적합한 정보를 찾아 질서를 부여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 생산을 통해서 학교교육과정과 연합운동을 이루어 낼 수 있다. 학교도서관과 각 교과영역이 그리고 사서교사와 각 교과 교사가 학교 교육 목표달성을 위하여 상호작용 하는 연합 운영이야말로 학교도서관 미디어 센터의 본질을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 이용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제한된 독서지도를 통해서 명맥을 유지해온 소장 매체의 활용지도를 정보능력의 틀로 묶어 교육과정으로 실현시킨 <정보와 매체>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 3. 학교도서관의 존재 의의를 위한 제언

우리는 지금도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말하고,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체제 정비를 말하고, 사서교사의 배치와 멀티미디어화를 말한다. 30년 전의 주장이 교수 - 학습 환경이 변한 새로운 교육환경 속에서 여전히 메아리 치는

것이 현실이다. 왜 10년 20년 전의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모습이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채 여전히 메아리로 남아 있을까?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학교도서관이 없어도 사서교사가 없어도 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이, 교수-학습 활동이 아무런 탈없이 수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즉 학교 교육에서 아쉬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허무한 존재였다.

교육정보화 맥락에서 추진되는 일련의 변화 속에서 좌석수의 증가, 공간 확보, 자료 수의 증가, 예산 증가, PC 대수의 증가, 사서교사의 배치와 같은 학교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산적한 외형적 문제의 극복을 시도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가 학교도서관이나 사서교사를 건너뛰어서 진행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관점을 달리할 때가 왔다. 접근 방법을 달리할 때가 왔다. 사서교사 배치, 예산 확보, 공간 확장, 멀티미디어화를 하면 학교 교육에 보탬이 된다. 그러니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라는 나 중심적 의사표현을 전환할 때가 왔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변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교육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 무엇 무엇이 되면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교수-학습 환경에서, 정보 능력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 달성과정에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먼저 제시하고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즉 고유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참여하든 개별 교과의 교육과정에 팀티칭 형태로 참여하여 본래의 연합 운영을 구현하든 교육과정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학교교육에서 학교도서관이나 사서교사의 빈자리를 허전해하고 아쉬워하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본질적 기능으로부터의 접근이 학교도서관의 인원, 공간, 자료와 같은 물리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다.

지식의 전달자로부터 지식의 안내자로 변하기

시작한 교사와 학교의 역할이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우리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기능과 역할 범주에 속한 것이었다.

이 기회를 발전의 토대로 삼기 위해서는 왜 학교도서관이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변해야 하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그리고 사서교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기분을 새롭게 인식할 때가 온 것이다.

## 2000 **신간**

#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서관리 이론과 실제

*Collection Management for the 21st Century : A Handbook for Librarians*

G.E. Gorman, Ruth H. Miller 편

신국판 617쪽 정가 20,000원

남 태 우 역

(회원보급가 16,000원) ISBN 89-7678-044-2

### 주요 목 차

- 장서관리의 미래 : 21세기의 장서개발과 학술커뮤니케이션
- 장서관리에 대한 기술적 기여 : 대학도서관에서 인터넷과 장서관리
- 전자환경에서의 자료의 선정 : 장서개발정책과 전자정보자원
- 미래의 장서평가 : 장서개발과 업무수행의 측정
- 전자문헌제공과 자원보존 : 전자문헌제공 서비스와 장서관리에 미치는 영향
- 장서관리를 위한 조직과 예산편성 : 새로운 세기의 장서개발을 위한 직원과 조직편성
- 협력장서개발과 관리 : 협력장서개발의 원리, 장애요소 및 구성요소
- 최신문헌리뷰

한국도서관협회 주소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e-mail : klanet@hitel.net